

(2018. 5. 19 시행) 지방직 9급 기출문제 [국어(D책형) 해설]

[안 한 섭 선생님]

제일고시학원 본점(충남대앞)중앙로점 www.okpass.com

1. 정답 ④

해설: 보기에서 나온 ‘짚다’는 ‘여럿 중에 하나를 꼭 집어 가리키다.’의 의미로 사용되었다.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.

오답 해설:

- ①은 손으로 이마나 머리 따위를 가볍게 눌러 대다.
- ②는 바닥이나 벽, 지팡이 따위에 몸을 의지하다.
- ④는 상황을 헤아려 어떠한 것으로 짐작하다.

2. 정답 ②

해설: ‘시키다’를 ‘하다’로 바꾸어도 의미에 이상이 없으면 ‘하다’가 맞는 말이고 ‘시키다’는 틀린 말이다. 그런데 ②에서 입원시켰다는 말과 입원했다는 말은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②는 맞는 표현이다. 나머지 문장들은 ‘하다’로 바꾸어야 올바른 문장이다.

3. 정답 ②

해설: 제시문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약하여 두려워하면서 잘못을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된다고 했다. 그러나 ②처럼 자신이 범한 과오를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는 말은 없는 내용이다.

4. 정답 ①

해설: 이 시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. 따라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되었다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.

5. 정답 ③

해설: 황제가 관상 보는 사람에게 자문을 했기 때문에 왕자가 관상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는 설명은 적절치 못하다.

6. 정답 ④

해설: (가)가 가장 먼저 온다는 것은 선택지를 보면 알 수 있다. (가)는 생명체의 ‘기억’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. 따라서 뒤에는 ‘기억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(라)가 나와야 하며, 결론이 나온 (나)문단이 가장 나중에 와야 한다.

7. 정답 ③

해설: 나뭇잎 같은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려면 꼼짝 않고 한곳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내용만 나왔지,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 식물을 가려먹는다는 내용은 없다.

8. 정답 ①

해설: (가)는 운율이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에 반해, (나)는 4음보의 운율이 규칙적으로 느껴진다.

9. 정답 ①

해설:

향려유례(鄉閭有禮): 마을에서는 사람으로서의 예의가 있다.

상부상조(相扶相助): 서로서로 돕는다.

형우제공(兄友弟恭):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.

자제유학(子弟有學): 자식(자제)에게 배움이 있다.

10. 정답 ④

해설

개선(改善):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,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.

개선(改選): 의원이나 임원 등이 사퇴하거나 그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새로 선출함.

통화(通貨):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. 본위 화폐, 은행권, 보조 화폐, 정부 지폐, 예금 통화 따위가 있다.

통화(通話): 전화로 말을 주고받음.

11. 정답 ③

해설: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이는 개인의 신념과는 거리가 멀다. 따라서 개인의 신념이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.

12. 정답 ③

해설: ‘학생2’가 ‘네가 동아리 회장이니까 네가 책임져’라고 했으므로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언급함으로써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.

13. 정답 ③

해설: ③에서 길을 묻는 것은 간접 발화가 아니라 직접 발화이므로 맥락에 의해 파악하는 간접 발화와는 관련이 없다.

14. 정답 ②

해설: 의존 명사 ‘간’은 기간을 의미할 때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쓰고, (일부 명사 뒤에 쓰여) ‘관계’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거나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를 나타내거나, 앞에 나열된 말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일 때는 ‘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.’ ‘얼마 간’처럼 띄어 써야 한다. 그러나 ‘부부간’처럼 가족 관계를 줄여서 표현할 때에는 붙여 쓰기 때문에 ②는 띄어쓰기가 틀린 문장이다.

15. 정답 ④

해설: 어미 ‘-되’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므로 사용된다.

「1」 대립적인 사실을 잇는 데 쓰는 연결 어미. 조금 예스러운 어감이 있다.

「2」 어떤 사실을 서술하면서 그와 관련된 조건이나 세부 사항을 뒤에 덧붙이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.

「3」 뒤에 오는 말이 인용하는 말임을 미리 나타내어 보일 때 인용 동사에 붙여 쓰는 연결 어미.

④에서 제시된 문장은 어떤 사실을 서술하면서 그와 관련된 조건이나 세부 사항을 뒤에 덧붙이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올바르게 사용되었다. 따라서 ‘하되’를 ‘하며’로 고치면 안 된다.

16. 정답 ②

해설: (나)에서 “어간에 ‘-이’나 ‘-음’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.”라고 했다. 그런데 ②에 나온 단어 중, ‘지붕’은 명사 ‘집’에 접사 ‘웅’이 붙은 것이므로 ‘어간’에 붙은 것이 아니다.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 옳지 않다.

17. 정답 ③

해설: ‘ㄱ’은 조음 위치에 따라 ‘입술소리’에 해당하고, ‘ㅅ’은 ‘혀끝소리’에 해당한다. 또한 ‘ㄱ’은 조음 방식에 따라 ‘비음’에 해당하고 ‘ㅅ’은 ‘마찰음’에 해당하므로 같은 성질의 소리끼리 묶은 것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.

18. 정답 ①

해설: 염상섭의 ‘삼대’는 등장인물의 시선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. 가령 제시문에서 ‘부친’이라는 지칭을 사용하여 서술자가 덕기의 시선을 빌려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①이 정답이다.

19. 정답 ④

해설: ‘대구’는 두 문자의 구조가 비슷한 것이고, ‘우의적’은 다른 사물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. 따라서 이 두 경우가 모두 들어 있는 것은 ④이다.

20. 정답 ④

해설: 사적인 글쓰기의 출현으로 작가가 독자와 직접 소통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없다.